

# 코로나19 확진 발생 이 비상시국에 함평군수 등 간부 무더기 출장 '논란'

### 국회 등 예산 확보 1박2일 자리 비워 "군민 안전 더 급한데 적절인가" 지적

함평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가 긴박한 가운데 함평군수 등 함평군 간부들이 무더기로 출장을 떠나 논란이다.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도 중요하지만 군민 안전이 더 위급한데, 군수가 간부들을 무더기로 대동하고 이틀동안 지역을 비우는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이다.

7일 오후 함평읍 시가지. 관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사흘이 지나지만 여전히 읍산할 정도로 조용하다. 확진자 근무처인 한국전력 함평지사에는 시설 폐쇄 안내문이 나붙었고, 휴대전화에서는 확진자들이 들른 함평읍내 동선 공개와 함께 보건소 상담 안내 문자가 다급하게 울린다. 함

평 5일장과 우시장이 폐쇄됐다. 전남도는 전날인 6일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반영해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상의 함평군수 등 상당수 간부들이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7일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국회와 중앙부처로 출장을 떠났다.

이 군수 일행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명을 만났다. 다음날인 8일 세종시 정부청사로 이동해 오전에는 기획재정부, 오후에는 행정안전부를 방문한다.

함평군은 이번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국립 축산창업교육센터 건립 사업, 하수 관거 및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 등 18건의 지역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건의할 예정이다.

논란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사회가 엄중하데 국회의원 1명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1

박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함평군은 첫날 서울에서 국회의원 1명을 만나고, 이튿날 세종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만난다.

또 이 시기에 안전 책임자인 안전건설과장을 중앙부처 방문에 동행해야 하는 지도 입설에 오르고 있다.

함평읍에서 만난 한 군민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함평이 어수선하고 특히 확산 우려가 커 불안해 하고 있다"며 "아무리 내년 곳간도 중요하지만 당장 감염병이 창궐할 조짐을 보이는데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가 자리를 비우는 게 적절한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은 부군수를 중심으로 보건소 등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내년 국비 확보 활동은 시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늦출 수 없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담양 친환경농산물 서울 임산부에 공급

### 꾸러미 지원사업 공급산지 선정

담양군은 서울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공급 산지로 담양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7개 자치구 4275명의 임산부에게 담양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제공된다.

"202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만8230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담양군과 담양농협은 먹거리의 철저한 위생과 안전성, 신뢰할 수 있는 유통구조, 생산자 직거래를 통한 합리적인 가격 보장, 특히 우수한 먹거리를 생산자로부터 직접 건너 받아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때 공급하기 위한 산지 새벽 직배송 등을 서울시 에 제안해 최종 선정됐다.

담양군은 이를 통해 지역 친환경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담양이 서울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공급 산지로 선정된 것은 담양의 친환경농산물의 우수한 품질이 서울시민에게 인정받은 것"이라며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서울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 서울시 동농상생 공공 급식, 서울시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 등에 선정돼 담양 친환경농산물·가공식품을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담양=노영환 기자 nyc@kwangju.co.kr

## 나주시, 여름철 악취 주범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 점검

나주시는 여름철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 해소와 수질 환경 보전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야간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축사 620곳, 퇴비사업장 7곳 등 모두 627곳으로 오후 8시부터 3시간가량 점검한다. 총 6개반 12명으로 점검반을 꾸렸으며 1일 2개반이 투입된다.

특히 악취 민원이 잦은 혁신도시 반경 3km 이내 축사와 왕곡·공산면 지역, 전년도 위반사업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 악취, 침출수 유출, 미 부숙 퇴비 살포, 장마철 분뇨 무단 배출 등이다.

무허가 축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폐쇄 명령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벗어나거나 규정을 어긴 곳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



나주시 공무원들이 미부숙퇴비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치하고 개선·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며 "여름철 고질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농가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세일글 "치안 취약 요소 꼼꼼히 확인해 주민 안전 확보"

### 김종득 장성 경찰서장

"지역사회의 치안 취약 요소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

최근 취임한 김종득 신임 장성경찰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책임감을 겸비한 현장 방법

집행력을 확립한 프로 경찰이 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 출신인 김 서장은 1992년 경찰에 입문해 전남경찰청 홍보계장·감사계장·생활안전계장·정문감사 담당관을 역임했다.

## 거리두기 여행에 강진 주작산 휴양림 인기...이용객 67% 상승

코로나19 여파로 여행 패턴이 '거리두기'로 바뀌면서 강진 주작산 자연휴양림이 인기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 개관한 신전면 주작산 자연휴양림은 지난달 말까지 채 두달도 되지 않아 2000여명이 이용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용객 1245명보다 67%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여행이 중단되고 국내에서도 다중시설 이용보다는 가족·연인 등 소규모 단위로 방문할 수 있는 청정지역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관광 트렌드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작산 자연휴양림은 169ha의 광활하고 울창한 숲속에 4인 기준의 통나무집 구조로 이루어져 타인과 접촉이 거의 없으면서도 가족 단위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9억원을 투입해 숲속의 집 3동을 추가로 신축했다.

현재는 숲속의 집 17동, 휴양관 1동, 청자동 11동을 운영하고 있다. 부대시설로는 아영테크장, 세미나실, 산산로 등을 갖췄다.

강진군은 오는 2025년까지 46억원을 들여 숲속의 집 신축, 산책코스 개발, 진입도로 개선 등 주작산 명품화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군 신전면 주작산 자연휴양림.

## 화순군, 결혼이민자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화순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화순형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에게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애초 결혼 이민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화순군은 최근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화순군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도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6일 현재 화순군 거주자로,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결혼 이민자다.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화순군은 결혼 이민자 지급 대상을 263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화순사랑상품권으로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공군 화순군은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정도 염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지원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고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dsuh.co.kr

**통증·재활  
교통사고**

**동신대학교한방병원**  
진료네트워크 : 광주·목포·나주·서울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최우수1등급 획득**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_650\_2500

**문영래 정형외과 병원**  
YM Orthopaedic Hospital

어깨, 팔꿈치, 무릎, 통증치료

■ 대표전화 062)606-8275

서구 운천로148 2, 3, 5층  
(상무중학교 옆)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전문병원

**밝은안과21병원**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

광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현변방향 062)354-9000

http://www.smstardental.com

광주전남 대표 치과병원·기아티아기즈 공식지정치과

**상무스타치과병원**

대표원장 김은규 외 원장 일동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치평동 1236-3)타임스퀘어빌딩 7층  
T. 062-367-8889 F. 062-367-8822

www.saewoori.com since 2002

**광주 새우리병원**

2018년 1월 현재 2011, 2015, 2019년 3회 연속 지정!

보건복지부 지정 **광주 유일**  
**척추전문 병원**

지정기간 : 2018.01.01 ~ 2020.12.31

광주 화정동 농성하 4번출구 대표전화 062)603-8000